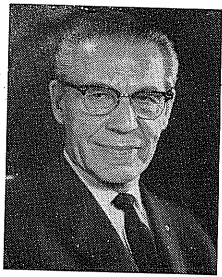


성도의 벗 12

1969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영감의 멧세지

부대관장 **엔 엘돈 태너**

금전적인 이해에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는 젊은 선교사의 헌신은 사랑의 봉사 이외의 말로는 표현될 길이 없습니다.

세계의 인류가 만일 이 멧세지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날 세상에 번지는 갈등과 핵의 위협은 내일로 종막을 고하고 분명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여 인간 개개인에게 허가된 자유의지를 노리는 전쟁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인 자유의지를 빼앗겠다는 결심을 한 저 하늘 전쟁의 계속인 것입니다.

제 5 권 제 12 호

순 서

1969년 12월호

- 권두언 ■ 모든 가정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 여러분은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헤롤드 비. 리 2
- 이 특별한 밤 제니스 에프. 허친슨 5
- 기록서 및 보고서의 사용법 델버트 엘. 스테플러 7
- 요셉 스미스와 가족 알버트 엘. 조벨 이세 10
- 주가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려면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11
- 달 정복에 부쳐 윌리엄 티. 사이크스 13
- 어린이 성도의 벗 : 특별한 성탄 성물 버나딘 베티 15
- 분홍색 경대 웬델 제이. 에쉬튼 18
- 인격의 나침판 마벨 존스 가봇 19
- 주일학교 : 만인의 소망과 즐거움 에발린 엠. 샌드버그 20
- 청소년편 : 심술난 신타크로스 돈루 테위트 22
- 관리 감독단 : 지혜의 말씀 존 에이치. 반덴버그 24
- 상향회 : 신뢰와 순종 리차드 에이치. 매드슨, 도라리 디. 매드슨 25
- 사랑의 힘 린시 알. 커티스 28
- 선교부장단 멧세지 :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사명 29
- 지방부장 멧세지 : 응답 되는 기도 배 영천 30
- 우리의 계보사업 세계에 알려지다 31
- 내외소식 32
- 진리의 말씀 : 나의 지난 세월—어디에 있는가? 리차드 엘. 이반스 표 3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 1969년 12월 1일

(통권 제53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매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 10 : 16)

이번 성도의 벗 표지는 “미대륙에 부활하여 오신 그리스도”란 제목의 존 스콧트의 그림으로 니파이인과 레이먼인을 뜻하는 “다른 양”에 관한 가르침을 묘사한 것이다.

모든 가정에

대관장 데이비드 오. 벅케이

● 성탄절은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에 오던지 풍성한 여름에 오던지 일년 중 가장 행복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봄은 새싹을 움트게하고 생생한 색깔로 단장을 시작하게하며 삶의 밝은 빛을 발하게하고 새로운 소망을 암시해 주고 행복한 날을 약속해 줍니다. 여름은 호화로운 아름다움의 관을 씌우며 성하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가을은 열매를 가져 오고, 익은 곡식과 오색으로 물든 들판으로, 자연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로 가슴을 채워 줍니다. 그러나 날은 점점 짧아져 걱정을 불러오고 냉랭한바람은 “추수의 들판에 침묵이 깔리고 산골짜기에 황량함이 덮일” 겨울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절기마다 그 특유의 즐거움과 영광이 있어 나라나 개인이나 혹은 개인의 집단이 각각 자기들에게 허가된 기쁨을 나눕니다. 또 절기마다 생일도 있고 국경일도 있어 그 축하의 형태도 정도도 다르지만, 성탄절은 세상 만민이 다같이 즐기는 날이요 우주의 기쁨이 약동하는 날입니다.

이미 여러번 들려진 구세주의 나심에 관한, 그 첫번 성탄의 이야기는 성경 누가복음에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 하는 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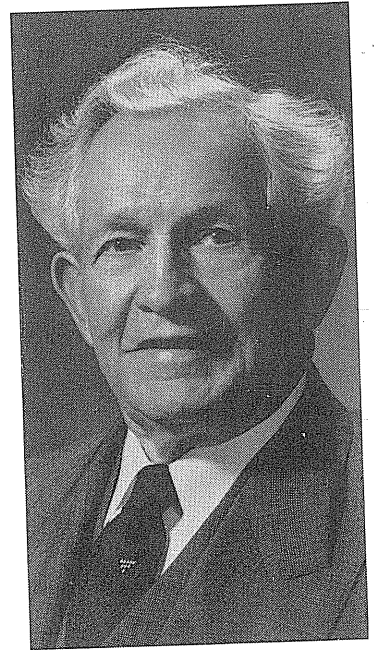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회로다.”(눅 2:8-11, 13-14)

베들레헴에서 거룩한 예언을 통하여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경하하는 날을 정하여 간직함이 참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로부터 베들레헴에 가서 세금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사렛을 출발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여관은 모두 만원을 이루었고 그리하여 이들은 하는수 없이 동물을 가두는,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굿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 그 누추한 곳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권세를 상속받은 몸으로 마굿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단 3년을 봉사하셨으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사람도 없으며 인류와 더불어 생활한 사람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인류를 위하여 베푼 행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의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발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률가도 아니었으면서 법률가를 변론으로 잠잠케 했습니다. 그는 저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만한 바리새인들로부터 송사당한 여인을 구할 때,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글자를 썼다는 기록이 있을뿐 오래도록 앉아서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간이 월계관을 다투는 그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이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인격의 절대자이십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국가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가정과 마을과 성읍 사람들의 어깨에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실재를 우리 모두가 느껴야하며 영적인 성장을 원할 진면 그의 철학의 실재를 우리의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진로에 있어서 쉽게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 몇가지 명확한 필요 과정을 열거해 봅니다.

1. **자유의 양심**: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자상의 사명을 이행하기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야 했습니다.
 2. **극기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유혹을 극복하고 유혹을 정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3. **사명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안녕과 요구를 희생했습니다.
 4.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 인간의 가장 높은 영적인 성공은 이웃의 복리를 위하여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삶이 거룩한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오늘날 세계 만국의 운명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중대한 질문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 물음에 답하되 빠르게 답하여 평화를 쟁취하겠다는 투쟁이 오늘날처럼 심각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성탄의 참된 정신은 그리스도의 참정신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며 그의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은, 그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구세주로 그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유한은 그것을 스스로 택한 아담으로부터 비롯했습니다. 이 선택은 발전의 한 과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은사인 자유의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어야 할 몸을 입었으나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어 모든 자기 후손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펴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나는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바 그리스도는 거룩하시요 진리로 말씀하셨고 이로써 모든 인류가 함께 거룩함을 알게 하시려 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참으로 이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간에 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드리도록 애쓰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행복한 성탄을 빌어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더 보람되게 사시기를 빕니다. 이번 성탄이 교회 역사상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권두언에 대신합니다. ○

여러분은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십이사도 헤롤드 비. 리

● 벌써 40년이 지난 옛 이야기지만 내가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뒤로 그곳 활동은 알차고 보람되었다. 오늘날의 표준으로는 꽤 큰 스테이크였고 산하에 와드가 11개나 되었으며 회원수는 7,500명이었다. 스테이크의 위치는 쏘트레이크 시의 남쪽이었고 때는 경제 공황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던 때였다.

어떤 성탄절에, 내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었던 기간의 첫번 성탄이었다고 기억된다. 우리의 작은 팔들이 성탄절 이른 아침에 급히 선물 주머니를 열어 작은 인형과 다른 선물을 꺼내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가더니 얼마후 돌이 다 눈에 눈물을 담고 돌아왔다.

“웬 일들이냐?” 우리는 함께 물었다. 흐느끼면서 들 중의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친구들은 성

탄 선물을 갖지 않았어요. 썬타 할아버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걸요.”

길 건너에 사는 집 식구들, 아버지는 비회원이었고 아이들만 별로 활동적이 아닌 엄마를 따라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해 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집 아이 아버지는 몇 달째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다. 우리의 성탄절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그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우리의 사려 깊지 못했음을 매우려 했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성탄절 특별 정찬도 모래를 썰는 것 같았고 마음은 온통 뒤숭숭했다. 결국 나는 스테이크에 소속된 모든 사람의 복지 문제가 내 어깨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조사를 해보고 놀란 것은 소속 회원 중 4,800명이 남의 도움을 받는 형편이었고 이들의 가장이 일정한 직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이 전혀 없었으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해야 했다. 교회 재정도 칩체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미 교회 본부에서는 재정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이와 같은 사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는 또다시 성탄절을 맞았다.

우리는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천여명이 될을 알았고 이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좀 해줘야만 함을 알았다.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피어폰 가에 상점 이층을 빌어 온갖 장난감을 모은(그 중에는 부서진 것이 태반이었다) 다음 성탄절을 2-3개월 앞두고 아이들의 부모를 모두 불러 모았다. 모인 사람들은 때로는 더 일찍 오거나 혹은 늦게까지 남아서 자기 아이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손질하곤 했다.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었다. 누구든지 그 방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압축된 그 정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우리 스테이크 내의 아이들 중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도록 하자고 목표를 세웠다.

궁핍한 4,800명의 가정에도 성찬 회식을 갖도록 준비를 서둘러 성찬 회식에 필요한 사탕과 오렌지, 빵, 콩, 군고기 등을 장만했다.

그때 나는 시의원 직도 갖고 있었다. 성탄 전전날은 눈이 너무 와서 나는 부하 직원들과 함께 계절 작업으로 밤을 거의 새우고 집에 들려 옷을 갈아 입고 다시 사무실로 가려고 시내를 지나던 길이었다.

막 시내를 빠져 나가려 할 때 길에서 차를 손짓하여 부르는 아이를 보았다. 날씨는 맵게 추운데 그 아

이는 의투도 장갑도 덧신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차를 세워 그 아이를 옆에 태웠다.

“애야!” 나는 물었다. “넌 성탄을 맞을 준비를 다했니?”

“준비가 안되었읍니다. 선생님, 준비라뇨. 우리 집에서 성탄을 아예 갖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는 석달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나하고 사내 동생 하나 여자 동생 하나가 남았읍니다.”

10세 미만의 세 아이!

“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야?”

“무료 영화를 구경 하려구요.”

나는 차의 히타를 올린 다음 그 아이에게

“네 네 이름하고 주소 좀 적어주지 않겠니?” 라고 했다.

더 얘기를 나눈 다음 그 아이네 집이 회원이 아님을 알았다.

“누가 너희 집을 찾아 갈꺼야.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말이다. 자 좋은 구경 하렴. 오늘이 성탄 전야란 걸 잊지 말아.”

그날 밤. 나는 감독을 모두 불러, 물건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각 가정을 방문하고 물건을 전달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마지막 감독의 결과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픈 마음으로 길에서 만났던 아이의 일을 기억해 냈다. 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일념으로 아침에 나의 차를 세운 아이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감독이 보고를 끝냈을 때 나는 물었다.

“감독님, 한 가족을 더 도와 줄만큼 물건이 남았나요?”

“네, 넉넉합니다.” 감독은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자초 지종을 이야기 해 준 다음 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얼마 후에 그 감독은 전화로 그 가족도 충분한 량의 음식을 받았노라고 보고해 왔다. 드디어 성탄 전야가 지난 것이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성탄절 아침에 눈을 뜬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지도자로서 나의 사람들을 모두 알지 않고서는 이 한 해를 보내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결단코 저들의 요구와 필요를 알겠습니다. 나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외쳤다.

내가 나의 사람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첫 해에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지나쳐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다. ○

이 특별한 밤

● “과부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발표할가도 했었다. 좀 우습게 들릴런지 모르나 사실 과부가 됨으로서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보비가 아홉 달이었고 패티가 4살이었을 때 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위에 말한 제목을 나와 결부시켰던 것 같다. 여섯 살 짜리 골든은 참으로 다루기가 힘들었다. 그는 쉽게 울지를 않고 자기 불만을 횡포와 노여움으로 터트렸고 그 결과 학교 성적도 말이 아니었고 온갖 감정적인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다. 나는 그가 그러한 일종의 시련의 시기를 언젠가는 벗어 날 것임을 알았지만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취침 시간에 골든은 기도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조차 힘들어 했고 하려고 애쓰다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는 내게 심술을 부렸다. 그러면 나도 일시에 피로를 느끼고 조금은 노하여 그의 불손한 태도에서 오는 불쾌감을 덜어 버릴 길이 없이 우는 채로 버려두고 그 방을 나오곤 했다. 혹 내가 팔로 안아 불에 입이라도 맞추어 주려고 하면 그 때는 정말 주먹 다짐의 싸움판이 벌어 지기가 일수였으니까.

그는 누이더러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부로 했다. 이것이 또 문제였다. 골든은 늘 자기가 누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차라리 누이가 죽었으면 좋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로 나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내가 혹 나무래면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요!”라고 악을 썼다. 그만큼 생각을 늘 극단으로 몰았다. 때로는 학교에서 의식적으로 문제에 뛰어들기도 했고 내게도 말썽을 일으켜 늘 처벌을 받던가 주변의 주위를 자기에게로 끌어 오려 했다. 나는 이러한 일로 늘 피로움과 마음 아픔을 겪어야 했다. 심리적인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더 절감했던 것 같다. 대개 어머니들이 모두 자기의 책임감을 잘 알고 있을테니 이 이야기가 좀 이상스럽게 들릴지도 모르나 나도 사실은 어머니로의 책임을 너무도 절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식들과 결부된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을 때 자녀와 함께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 저들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쏟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르쳐 주고, 저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 등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나는 교회에서는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내가 다니던 와드는 그 규모가 작았고 소속 회원 모두의 도움이 필요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맡았던 교회 직책은 여섯이었다. 여기다가 가정에서의 새로운 직책——지붕에 못을 박는다던가 연통을 손질하는 일 등——을 더하게 된 나는 힘에 점점 몰렸다. 패티가 함께 놀자고 조르던가 골든이 나의 이해와 사랑을 원하던가 보비가 내게 씨름을 걸어오고 매달려 응석을 부릴 때는 언제나 나는 공과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여 아이들의 요구에 참을성 있게 답해 주지 못하였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나는 교회 일도 열심이었지만 아이들도 사랑했다. 드디어 나는 아이들에 대하여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엇인가를 게을리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또 그토록 중요한 교회 일을 부지런히 계속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허가받지 못한 것을 알았다. 정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만 직책을 내 놓는다? 그것은 마치 호흡을 중단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언제고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조였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이었다.

나는 낙담하여,

“내가 맡은 모든 교회 일을 이행하면서 자녀를 옹계 양육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부름받은 일은 해야만 하지 않는가?”라고 혼자 뇌었다. 나는 대답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왔다.

“직책을 내놓아라. 모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내놓도록 하라.”

이러한 대답을 듣고 나는 주님께서 가정의 유대와 질서까지를 바쳐 봉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알았으며 내가 자녀 양육에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실패할 것을 알았다.

일단 결심을 한 다음 나는 맡고 있던 직책 세가지를 내놓고 아이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노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의 반응에 저우기 놀랐다. “이젠 엄마하고 종이 인형 놀이도 할 수 있구나!” 패티는 숫제 합성을 울렸고 골든은 귀를 잡고 들었다. 보비는 사태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카우보이가 하는 식으로 내게 덤벼 들면서 큰놈들의 분위기에 쌓여 갔다.

제니스 에프. 허친슨

허친슨 자매는 미국 유타주의 윈더버 와 드의 기초 교리반의 교사이며 윈더버 학교의 서기이다. 이 가정의 밤을 하므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관한 기사는 1961년 자기의 남편을 잃은 후의 경험이다.

나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고 아빠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아이들이 속히 극복하며 더욱 단합된 가족으로서 복음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너무도 커다란 과제로 대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럴 즈음에 교회에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가정의 밤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과도 갖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맡아 준비하도록 하였다. 가정의 밤 순서를 끝내지 않으면 모두 옥수수를 튀기며 부푼 마음이 되었다.

나는 생활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게임도, 만화 그리기도, 등산도, 색다른 다과도 준비하여 시간을 즐겼다. 그리고 심각한 태도로 공과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계속했지만 이를 통하여 아이들을 당장 천사로 만들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도 어렸고 한창 자라는 과정이라 보비의 우유는 고양이 밥통에 쏟아져 있기가 일수였고 목욕탕 거울을 온통 치약으로 범벅을 해놓든가 패티는 옷을 벗어서 옷장에 넣지 않고 옷장위에 던져 버렸으며 골든은 썬드위치 부스러기를 문 뒤에 아무렇게나 흩어 놓고 과자 부스러기를 온통 벼개 밑에 쌓아 두든가 교과서나 숙제는 집 밖에 감추어 두었고 말대답은 보통이었다. 말할 수 없는 장난꾸러기요 개구장이었던 것이다.

가정의 밤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누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했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물으면 골든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패티나 보비도 아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한다는 식으로 모두 아니라고 잡아 뗐다. 결국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의 해결이 처음엔 암담하기만 하였다. 가정의 밤 교재가 어린 아이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일깨워 비록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공과를 다루면서 나는 그것이 어른에게나 적용이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루는 상점에 나가기 전에 유화를 완성하여 피아노 위에 얹어 두고 나갔다. 그림은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여섯 장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

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림에 큰 손자국이 나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 물었다.

“패티?”

“엄마 난 아니야요.!”

“보비?”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골든! 네가 그랬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골든?”

“예?” 조용한 대답이었다.

“네가 그랬니?” 나는 좀 빙빙하여 다시 물었다. 다시 대답이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방 구석으로 가서 손을 씻은 형질을 내 왔다.

“어떻게 해서 이번엔 했다고 대답을 했지?”

그는 어깨를 한번 추스린 다음,

“저, 지난번 가정의 밤 공과의 내용을 생각했어요.”

참으로 발전을 암시한 성장의 첫번 큰 발자국이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한 가정의 밤 공과는 가족 개개인이 가정 형성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저마다 다른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자기들은 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또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이들의 특기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였던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놀랐다. 나는 장난민 골든이 무엇 이든지 수리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묘한 아이디어가 왔다. 식당에 까는 리노름 끝 부분에 철재 장식을 달아야 했던 것이다. 골든이 학교에 간 사이에 리노름 장판 끝 부분에 못 구멍을 직선으로 죽 뚫어 놓았다. 그 뒷일은 골든이 의기 양양하여 끝냈다. 나는 공과를 가르치면서 이 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다른 식구들 앞에서 얼마나 으쓱해 했는지! 그 공과는 그에게 새로운 무엇을 생각하게 했다. 그는 언제나 수리하는 일에는 열심이었다. 그는 공과를 통하여 그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됨을 알았다. 나의 아이디어가 열매를 거둔 것이다. 패티와 보비의 재능도 발표되었다.

하루는 마을의 노인을 상대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잊지 못할 추억은?”이란 제목의 여론조

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스미스 노인이 향수에 젖은 미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즐겼던 잔치였오. 서로서로가 중요하고 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란 걸 느꼈으니까……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빵 냄새와 반찬 냄새, 함께 즐기던 꿀차 그리고 그토록 즐겁던 민요의 합창 등은 결코 잊지 못할거요.”

또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 자매 두분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새로 구어진 빵 냄새를 맡는 일은 늘 즐거웠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들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으니까요. 또 식구들이 모이는 곳이기도요. 성탄절이 되면 우린 추리에 장식할 구슬을 꿰고 집을 장식할 열매를 주으러 들로 산으로 나갔지요.”

가풍이란 간단하면서도 그 가정 특유의 운치를 살린다. 가족 활동이 가족을 단합시키고 영속할 추억을 만들진대 나도 자녀를 위해서 그 “추억”을 아름답게 창조해야 했다.

나의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시간이,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나는 가족의 보다 긴밀한 유대와 보다 강한 신앙과 큰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를 계속함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서로 좋은 모범을 보이며 서로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 혼자 처리하기엔 벅찬 과업이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했다. 너무 피곤하여 가정의 밤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날도 이제 막 가정의 밤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골든이 이제는 내게 이야기를 전하고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었던지 모른다. 때로는 그가 자진해서 내복에 팔을 감고 굿 나잇 키스를 해달라고도 했다. 골든이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지 못한 사람은 현재의 상태를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심술을 부리지도 않았고 그전에 하던 것처럼 누이 동생에게 난폭하지도 않았다. 발렌타인 축제의 밤에는 패티에게 이런 글도 썼다.

“나의 귀여운 패티. 난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다만 사내로서 이 오빠는 동생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무척 부끄러울 뿐야. 사랑하는 골든으로 부터”

패티는 오빠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흐뭇해서 연방 링크를 던지며,

“오빠가 나를 이만 저만 사랑한다구!”하며 좋아 했다.

가정의 밤을 계속하며 가족의 유대가 두터워지자 골든은 왜 이제까지 기도를 할 수 없었던가를 설명했다. “내 기도는 하늘로 갈 것 아냐? 그런데 거긴 아빠가 계시지.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슬퍼졌어.” 내가 늘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그는 자기 하나만 슬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인 줄은 내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취침 시간에 그전에 일부터 피하곤 했던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고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으라고 했다. 내가 자기만큼 슬픔을 갖고 있음을 안 그는 오히려 나오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우리가 가정의 밤 활동을 계획하여 갖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관계는 이루어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의 대화가 빈번해지면서 나는 마침내 벌받고 싶어하는 그의 감정적인 갈등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빠를 끔찍히 그리워 했고 자신에게 육체적인 피해를 가함으로써 죽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죽음, 아니 죽음의 세계! 아빠가 계시는 곳, 그는 그곳에 가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 졌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많은 것이 개선되었고 그 중에 골든의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내가 저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다. 또 아이들은 저희 개개인이 다 서로서로에게 중요하며 또 가족이라는 집단으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가정의 밤을 준비한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감사한다. 골든의 모든 문제가 결코 하루 밤 사이에 다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무려 3년이나 걸렸다.

이 특별한 밤, 일주에 한번 갖는 이 밤의 추억이 아이들의 영원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 다음에 그 아이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나의 손자 아이들이 저들에게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참 좋았지, 그 가정의 밤의 추억말야. 함께 어울려서 우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즐겼지!”라고 대답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가정에서의 기억이 추억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영원히 계속될 불멸의 현재 일 수도 있는 것이다. ○

기록서 및 보고서의



사용법

델버트 엘. 스테플러

십이사도

● 기록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영원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 기억하기 위하여 간직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은 “장차 사용하기 위하여 글자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예언자의 멧세지에 보면 인간은 중요한 두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다.

첫째,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광스런 영생과 불사불멸의 상태로 전진하게 함.

둘째, 인간이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됨.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 이사야, 니파이, 몰몬, 모로나이, 요한, 바울 등은 위대한 예언자였고 동시에 위대한 작가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된 문서는 주님의 선지자와 그 백성간의 끊이지 않는 대화의 통로였다.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통의 수단으로의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는 거듭 인식해야 할 것 같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교통의 통로를 열어 기능을 발휘하게 할 때 우리의 약점은 제거되고 장점은 더욱 튼튼한 요새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은 우리를 단순히 하늘로 끌어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간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쓰일 기록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주님은 니파이에게 “.....모든 자에게 명하노니 내가 저들에게 말하는 바를 기록하라. 나는 그 기록된 책으로 그 속에 기록된 것에 의하여 모든 사람을 저마다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겠음이라.”(나이 29 : 11)고 하셨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의 심판을 위한 기록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퍼져 있으나 죽은 자는 저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이들 땅에서 기록된 책들이요 생명책이라 함은 하늘에서 기록된 기록이니라.”(교성 128 : 7)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은 강조되어 왔다. 교회의 지도자의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기록은 필수적 조건이 되며 이로써 지도자들은 영생으로 향하는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일하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한다.

나는 고대에서나 또는 회복된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기록이 교회가 뜻하는 사업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늘 기억

하여 왔다. 기록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개인개인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했던 것이다.

기록은 피동적인 것이나 보고서는 능동적인 것이요 살아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된 보고서의 정의를 주목해 보자.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히고 행해지고 사고된 것의 현상” 그러니까 사용된 단어가 동사임을 주목해야겠다. 또 다른 정의를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

보고서는 완전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고 정연하고 때에 뒤늦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보고서에는 기록 사항, 회의록, 그리고 서기가 관리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통계표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지도자가 이를 받고나서 즉시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교회 지부나 와드의 관리 역원에게 제출되어 검토되며 교회 전반을 통하여 스테이크나 선교부에서도 사용된다. 보고서가 완전하고 바르게 작성되어 보고 되는가에 대한 책임은 이들 역원이 진다.

보고서를 준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준비된 보고서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역원을 선출할 책임도 관리 역원이 진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므로써 자기가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

교회 총 관리 역원은 스테이크 관리 역원과 서기를 선택하고 지지하고 성별하는 일에 더욱 더 신경을 쓴다. 이들 역원이 보고서에 관하여 저야할 책임에 관하여는 이들이 부름을 받을 때 강조해 둔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뢰를 심어주며 또 스스로를 신뢰하도록 해준다.

스테이크 서기는 합당한 절차에 좇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보조 서기를 선택하여 훈련시키고 신권회 정원회 서기와 기타 와드의 보조조직의 서기를 선택하여 훈련시킨다. 와드 서기는 와드 보조서기와 아론신권 정원회 서기 및 보조조직 서기를 훈련한다. 서기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들이 더욱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며 서기를 훈련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의 댓가로 우리는 보다 온전한 보고서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써 관리 역원은 보다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훌륭한 보고서는 역원과 지도자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약한 부분이 어디이며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를 명백히 지적해 준다. 지도자는 보고서 하나만 가지면 자기가 관할하는 단위지역 및 조직이 발전하는지 퇴보하는지를 알며 소속된 회원이 영적으로 발전하는지의 여부도 알게 된다. 정확한 보고서는 단위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알려주며 우리는 늘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면밀하게 검토되어

야 하며 해당란에 소견을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제출된 보고서가 검토되었고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

훌륭한 지도자는, 치 항해사가 나침반을 이용하듯 제출된 보고서를 사용하여 그리하여 이제까지 지나온 과정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된다. 훌륭한 보고서는 지도자가 맡고 있는 교회의 여러 분야의 일을 일선에서 감독하는 눈이 된다. 유능한 지도자는 보고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다. 그는 훌륭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보고서에 나타나는 숫자와 통계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무아무개는 훌륭한 성적으로 초등협회를 졸업하지 못했고 아론신권을 받지도 못했으며 상향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아낸다.

잘 훈련된 지도자라면 자기 양떼를 다스릴 줄 안다. 그는 사소한 일까지 무엇이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알아 이를 칭찬해 주고 더 강조되어야 한다던가 격려가 필요한 부분



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지역 지도자는 반드시 해당 보고서를 부지런히 검토해야 한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지도 체제는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고 결코 밑에서 거품처럼 위로 치솟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훌륭한 보고서와 기록이 준비되므로써 지도자는 자기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회원 활동상황을 한달 전의 것과 비교하기도 하고 일년 전이나 이년 전의 것 혹은 오래 전의 것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비교되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자기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터무니 없는 남의 것에 기준을 두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표준에 준하여 비교함이 더욱 현명한 것이다. 여기 비교의 대상을 열거해 본다. 부음은 영원한 발전을 가르친다. 나의 책임 영역에 소속된 회원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도대체 회원의 몇 퍼센트가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한... 전, 몇년전의 출석율은 어떠 했는가? 성인 회... 중에 신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신전 결혼을 한 비율은? 청소년의 몇 퍼센트가 세...에 참석하러 이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물론 위에 열거한 것은 단...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를 합당하게 준비한다면... 중요한 많은 다른 성격의 문제를 캐낼 수 있게 된다.

물론 지도자로서 자기가 파악하는 지역의 성도들에 관하여 알아야 할 많은 사항이 보고서나 기록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자는 임무 수행 평가의 자료로서 늘 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

보고서를 갖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지도자는 측정 장치를 달지 않고 비행하겠다는 비행사와 같다. 지도자는 보고서에 나타나는 동태에 민감하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사태 처리와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도를 강구할 것이다.



현신적인 지도자는 스스로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검토하여 일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확인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것이다.

서면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지도자는 발전 상황 전체의 움직임을 월별로 비교하여 성도 개인의 발전을 포함한 교회 전반의 프로그램을 파악하게 된다. 현명한 지도자는 보고서 및 기록을 토대로 하여 프로그램 진행의 평형과 회원 간의 긴밀한 유대를 꾀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있어서 인간 개인개인이 소중한 단위가 된다. 교회 활동과 보고서는 모든 교회 회원이 이성과 앞으로 올 세계에서의 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생활을 갖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상호간의 교통을 보다 원활히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역원이 임무를 잘 알면 잘 알수록 그만큼 더 유능한 역원이 된다.

교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보고서가 정리되어 감독의 책

상에 제출된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필수인 것이기는 하지만 감독은 신권 평의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교회 프로그램에 보다는 회원 개개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도와주고 숫자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기 보다는 실제로 회원의 생활을 돕는 일에 더 열을 쏟을 것이다. 그는 어떤 활동이 성도의 생활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눈으로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다. 그는 보고서의 숫자를 성도의 영혼으로 읽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혼의 길잡이가 된 지도자로서 상징적인 뜻으로만 보고서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보고서는 훌륭한 활동이 있을 때 만들어 진다. 또한 훌륭한 보고서란 현신적인 회원의 활동 상황을 반영시킨다.

현명한 감독이라면 신권 지도자와 더불어 보고서를 구두 평가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와드 평의회 및 와드 관리회의에서도 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감독은 보고서로서 활동적인 가정과 비활동적인 가정을 찾아내며 보고서에 나타난 경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발전을 시도할 것이다.

스테이크 부장도 감독이나 신권회 지도자와 더불어 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그 이상의 심각한 면까지를 연구하려 할 것이다. 스테이크 부장은 각 감독이 각각 자기 와드에서 그곳 회원의 필요와 요구에 응하여 과연 적절하게 계획하는지 혹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교회의 지역을 책임맡은 십이사도는 역시 여러 스테이크 부장의 활동 상황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한 지도자들의 시간, 정력 등은 보고서를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헛된 수고로 끝날 것이다. 보고서의 기록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하고 배에 뒤늦지 않은 것이라면 지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유능한 기록 서기를 선택해야만 하며 이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아 자기들의 임무를 충분히 알도록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참으로 기록과 보고서의 첫번 목적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계획에 따라 완전과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님께서 아끼셨던 위대한 기록자인 모로나이는 자기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남겼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모로나이서 10 : 32)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

요셉 스미스와 가족

앨버트 엘. 조벨 이세

● 어느 주일학교에서나
또 누구든지
천사 모로나이가 1823년 9월 21일과 22일에 세번
선지자 요셉의 침대 옆에
찾아 주신 일,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요셉이 그 부친과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아팠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담장을 넘다가 쓰러진채
그는 천사의 지시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지난 밤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언자의 모친 루시 맥 스미스는
요셉 스미스의 역사라는 책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밤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요셉은 들에 계신 부친께 이야기 한 모두를
가족에게 알렸고
그가 구모라 언덕을 방문한 일과
천사가 물몬경의 기록을 알려 준 일,
그것이 감추어 진 일들
모두 알려 주었다.
있었던 일로
요셉이 기진한 것을 안 그의 만형은
이렇게 일렀다.
“자 아우야, 잠 자리에 들자.
내일은 일찍 일어나
해가 지기 한 시간 전에
하루 일을 끝내야지.
어머니가 저녁을 일찍 준비하시거든
저녁 시간엔 오래도록 모임을 갖고
모두 둘러 앉아
하나님께서 내게 밝혀주신
놀라운 일을 듣기로 하자.”
(루시 맥 스미스 저 : **요셉 스미스의 역사** [폴트
레이크시 스테판월리스사 1945 81 페이지])
다음날 해가 질 무렵

요셉은 그 가족들에게 경험한 바
놀라운 일을 들려 주었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과
자기 임무를 즐거운 모습으로 들려 주었다.
밤이면 밤마다 엄마는
식구를 모아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고
엄마는 이렇게 기록하셨다.
“생각컨대 우리 가족은
이 땅에 살았던 어느 가족보다도
한덩어리로 뭉쳐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빠짐없이 둘러 앉아,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성경을 완전히 읽은 일이 없는
열 여덟 살된 아들에게 귀를 모으고
그의 여덟 아이들 보다도
깊은 명상과 탐구에서 울어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빛 가운데로 가져 오려 하심을 알았고
그것이 보다 온전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설계임을 알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크게 기뻐하였고
우리 가정엔 따듯함과 행복이 넘쳐 흘렀다.
또한 우리의 마음엔 늘 조용함이 있었다.
“밤에 자리를 함께 하여
요셉은 때때로 마치 그가 세상 여러 곳의
사람들과 오래 생활한 것처럼
옛 사람들의 옷 차림과
여행하는 방법과 그들의 전쟁과
종교와 예배의 방법과 성음과
건축의 모습을
힘 안들리고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들려 주었다”
(전계서 82-83 페이지)
요셉의 부친의 5대 손이요 교회의 축복사인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는 “나는 그것이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최
초의 가정의 밤이라고 생각됩니다”고 137차 반연차 대회에
서 그는 위와 같이 말하였다. ○
(**임푸르브먼트** 이라 1967년 12월호 82페이지)

교회의 제 7대 대관장이신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청소년에게 주신 말씀

주가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려면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발췌

무한하신 주의 보상

●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번은 저금을 하려고 돈 50불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금식 모임에—그때는 금식 모임을 목요일에 가졌음—참석했더니 감독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말없이 나아가 50불을 냈습니다. 감독님은 그중에서 5불을 집어 실험에 넣으신 다음 45불을 돌려주시면서 그건 내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울리 감독님,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제가 주님께 진 빚을 갚겠다는데 말리시죠? 감독님은 오늘 주님께서 네배로 갚으신다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를 여의신 몸으로 200불이 필요하신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은,

“애야! 내가 네 돈 45불을 마저 받으면 주님께서 200불을 속히 돌려 주시리라고 믿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금식 모임을 끝내고 일터로 걸어가면서 문득 나는 묘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일하는 전에도 한 두번 길에서 보았을뿐 이야기는 해 본 일이 없는 분에게 전보를 쳐서 주의 매입을 알아 보았고 대부 관계도 알아 보았더니 내가 이야기 하는 주는 있는대로 사겠다고 했고 대부 관계도 길을 열어 주어 나는 그 일로 218불 50전을 벌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감독님께로 가서, “감독님, 제가 그 50불을 현금하고 나서 218불 50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1불 85전을 제가 감독님께 십일조로 빚지고 있는데 가진게 18불 50전이니 차액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4배로 축복하시면서 10일조로 낼 돈은 넉넉히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더러는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연히 전보를 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영적으로도 발전함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노력과 시간을 바칠 때 우리의 간증이 자라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영적인 축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며 이러한 축복은 세상의 어느 것 보다도 귀한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니파이—“나를 안내하는 별”

대관장님은 젊은이에게 강한 호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생애는 곧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것의 발현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권고의 말씀은 특히 본보기가 된다 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고상하고 남성다운 꿈을! 그리하면 여러분의 꿈은 자신의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있을진대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정하신 다음 이의 성취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십시오. 실제로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낮은 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의 노력이며 일입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영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으며 행함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사람은 참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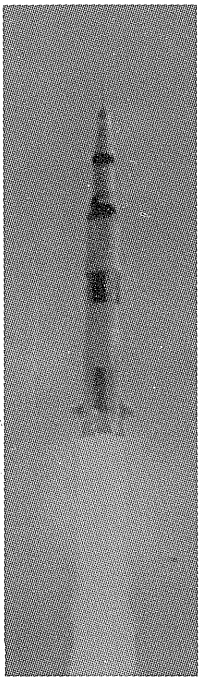
합당한 결정을 내린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구절로 니파이가 자신의 형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 레이반으로부터 동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니파이의 형들이 광야의 아버지 천막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성할 방편을 마련치 않으시고서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몬경의 이 구절을 읽고 니파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스럽거나 혹은 치욕적인 역사이거나 간에 그 역사에 부여된 인물중 구세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는 별이 되어 왔습니다.

성공의 정의

1897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재산을 모은 사람, 그것을 모으기 위하여 마음에서 샘솟는 자연스러운 사랑을 외면하고 따라서 친구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는 물론 마음 깊숙한 곳의 움직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록 가난한 가운데 죽었다 하여도 성공이라는 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의 성공의 율법은 겸손하고 기도하려는 마음과 일하려는 의욕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이상에 쫓아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치료할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예지를 간청할 수 있는 생활을 하며 그의 성령의 인도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의 약점은 극복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만큼 충실하지도 근면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것만큼 나의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



달 정복에 부쳐

윌리엄 티. 사이크스

● 길고 날카로운 물체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인간을 싣고 다른 별엔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는 반쯤 잊혀진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환상의 심연에 매장된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역사의 처음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4~6)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거인인 인간은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여 성급한 존재이다.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이 달 표면이나 화성 또는 기타 태양계 하나로 끝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들 중의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것에 만족할 것인가?

말일성도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저 먼 곳에 코롭이라는 위대한 별 근처에 보좌를 마련하고 계시며, 인간의 상상으로만 가능한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이 참으로 실현되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아들로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득차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큰 희열을 느끼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왕국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별을 보니 별들이 매우 크고 그 별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매우 가깝고 또 그것 가까이엔 큰 것들이 많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들은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별이니라. 가장 큰 별의 이름은 코롭이라 하니, 내게 가까이 있음이라. 나는 주네 하나님이니라. 나는 이 별을 두어 네가 지금 서 있는 별과 같은

계통에 속하는 모든 별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서 3:2~3)

이 간단한 말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코루에 까지 연결되는 많은 별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천체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한 때 한 곳에만 존재하시는 인격체의 소유자이시며 무한한 통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특히 이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셔서 친히 나타나시기도 하며 우리가 친구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도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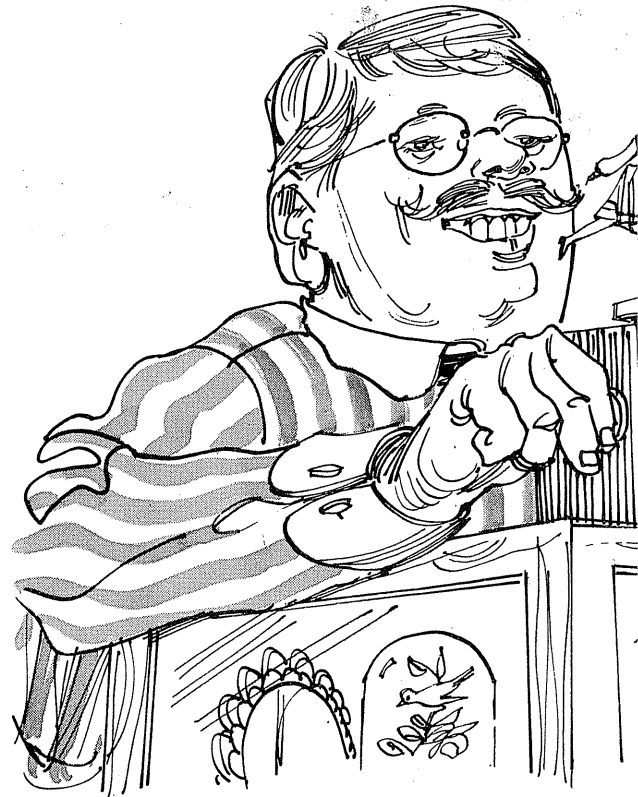
“두가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는 다른 것 보다 상위에 있나니, 달은 지구보다 위에 있느니라. 그러할진대 달 상위에 존재하는 한 운성 곧 별이 있느니라. 주 네 하나님은 하고저 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아브라함서 3:17)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고저 하는 일 외에는 마음에 두지 않으며” 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의도하는 바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첨단에 이룰 수 없으며 지상에서의 생활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단려진 죽음의 문만을 선물로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하늘을 치솟는 미사일이 곧 영원한 생명을 뜻하며 인간은 우주와 같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하나님이 “영생을 가진 자가 곧 부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방대한 우주가 자기를 탐구하려 애쓰는 사람에게 신비를 나타내 보여주듯이 인간은 보다 이성을 바탕으로 믿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불멸의 존재와 같은 자리에서 “위대한 탐구자”의 입을 통하여 우주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구의 신비나 지상 생활 이후의 것에 대하여 알아 무엇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아니다. 아울러 달이나 그 밖의 천체를 정하여진 우주 프로그램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만일 현재 인간의 상태로 다른 천체에 가서 살 수 없다 하여도 이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워 주신 바에 좇아 생활하는 일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주를 상대로 인간이 달성한 결과는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성과 대를 쌓기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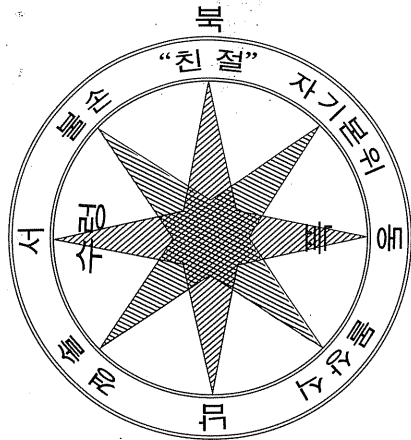
● 아빠가 미국 개척자들로 이루어진 새 마을이라는 부락에 마차를 멈추자 재미는 잦싸게 뛰어 내렸다. 그러자 파울 형과 헤스터 누나도 내려와 옆에 섰다. 성탄절 전으로는 마지막 나오는 길이니 선물도 이번엔 사지 못하면 그만이다.

“한 시간 안에 와야 한다! 알았지?”

아빠는 말을 기둥에 매시면서 말씀하셨다.

“네, 알았어요.” 재미가 제일 먼저 대답했다. 재미는 아빠가 화올려 아주머니에게 병간호를 부탁하고 온 엄마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엄마는 몇 번이나 팬찮다고 안심을 시키셨지만 역시 걱정이신 모양이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밖을 보시게 침실 창문 가까이에 바짝 내놓은 넓은 침대에 누워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하시면서 지으신 미소는 너무도 부드럽



인격의 나침판

마벨 존스 가뭏

● 십년이나 십일년, "아니 팔구년만 살았다면 우리들 인간이 참으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울창한 숲 속을 헤매고 있는가. 또는 길조차 없는 황량한 사막을 지나는 위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당하는 위험을 전하고 싶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무례의 수렁에, 부주의의 골짜기에, 친절과 비이기적인 길에서 벗어나 미아가 되고 만다.

나는 안내자를 하나 갖고 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나의 안내자는 나침판과 같다. 자침은 언제나 북을 가리키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침판의 북쪽 별은 친절이다. 행동의 열쇠이며 수렁이나 골짜기에 처했을 때의 안내자이다.

내가 부주의의 수렁에 빠져 길을 잃어 클러브와 배트를 아무데나 두고 신을 벗은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거나 옷도 편리한 곳에 걸쳐두는 것을 보고도 내 나침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북쪽 별 바로 친절이다. 내 물건을 부모나 동생의 손으로 치게 하다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을 더럽게 한다니 불쾌한 일이다. "친절한 일을 하라."고 내 나침판은 말해 준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조정하는 일이다. 어린 친구와 함께 야구를 하다보면 투수가 형편없이 던지는 볼마다 불을 선언하거나, 코치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할 때에도 나는 내 나침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친절을 기억하는가? 투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친절할 말을 해주어야지. 그도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친절할 행동으로 용기를 주어야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말은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누가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보여주었다. 보여주면서 뽐내는 기세가 마음에 걸렸다. 나침판을 조사하기도 전에, "좋기는 한데 영철이 것 좀 보는 게 좋겠다."가 튀어나왔다. 너무 늦은 것이다.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는 나침판을 좀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친절할 말을 해주어야 한다.

무례 또한 나를 실패케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든지 라디오를 혼자 듣고 있을 때는 적게 한다든가 텔레비는 가족과 함께 본다든지 하는 식의 친절을 염두에 둔다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나침판이 나의 행동을 안내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았는가? 큰 누나가 이 말을 해야겠다고 일러주면 내 나침판을 무시하고 말다툼을 벌릴 것이 아니라 누나의 제의에 따르는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나침판이 가족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는 일, 껌을 씹거나 길 거리에서 난잡한 행동을 벌이거나 교회에서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잘못은 친절로 시정할 수 있고 나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 나침판이 나를 위해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가? ○

만인의 소망과 즐거움

에발린 엠. 샌드버그

베드로의 시현과 간증을 통하여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던 초기의 관습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의 씻음은 누구나 다 받게.....

● 그리스도가 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너무도 자주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전도사업을 이어 받은 수년 간을 뜻한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모아 “사도 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나는 행적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가 베푸시던 이적을 그의 여러 사도가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성령의 복음”이라 부른다. 이 기록은 이방인 속에 들어간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들어간 베드로의 사명에 관한 설명이다. 또한 베드로가 후에 시현을 보고 개종하여 복음을 만방에 펼 위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바울의 강한 간증과 이를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작용하여 실로 많은 사람이 개종하여 침례를 택하였다. 하루에 삼천명이 믿는 사람이 되어 침례를 받았다. 오천명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사도 행전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여졌다. 이방인의 관습과 생각이 유대인의 생활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 백성과 사귀는 것마저 “불법”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초기의 유대 신자들은 이 율법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여 생활에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기독교사에 일대 변혁의 때가 이르렀으니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그 유명한 시현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 시현에서 여러가지 많은 짐승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이 율법으로는 “깨끗지 못하여” 음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에 베드로는 거절하였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그러자 음성은 다시 대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9-16)고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히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은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으니라.” (사도행전 10:19-20)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과 욥바에서 온 형제

몇 명과 함께 떠났다.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 오도록 했다. (사도행전 10:2)

고넬료 자신도 기도하는 중에 시현을 보았는데 그 시현에서 하나님의 찬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아셨다는 점을 말해주었다. 그를 만날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며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할 바를 알려 주리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사도행전 10:1-6)

외로운 두 사람을 이끈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잘 안다. 두 사람이 간혹 희의 같 뜻은 몰랐다 하여도
나로운 가운데 인도 기를 바랐던 것이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이르자 고넬로는 “맞아 발 앞에 엎
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
이다” 하였다. (사도행전 10 : 25—26)

그 집에 들어선 베드로는 고넬로의 친척과 친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사를 나
누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
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
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
렀느냐”(사도행전 10 : 28—29)

고넬로는 자기가 시현에서 받은 지시와 내용을 전해주었
고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
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
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 : 34—35)

베드로는 계속하여 예수와 그의 성스러운 사명에 대하여
간증하였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을 기름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
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
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0 : 37, 38, 43)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
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읍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
령을 부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태를 파악한 베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
례를 주라”(사도행전 10 : 47, 48)

이방인도 교회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유대인의 놀램은 어떠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
로를 다음과 같은 말로 힐난하였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로서는 유대의 율법을 어기면서 까지 그러한 행동
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본
시현에 관한 내용과 고넬로가 사람을 보내 자기를 맞으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로 자기의 설명을 마치
고 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
음 우리에게 하신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심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사도행전 11 : 15—16)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말로 끝
맺고 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
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사도행전 11 : 17)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잡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려……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1 : 18 참조)

이 때를 시작으로 복음은 어느 곳의 누구에게나 전파되
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전도 사업에 종사하고 계실 때 보여주신
이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도의 위대한 업적에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합당하여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만일 그들에게서 이러한 차이점을
제거해 버린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말씀은 선택받은 적은 무리를 통하여
못 사람에게 퍼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은 초기의 시대로부터 만인을 위한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뜻하고저 하는 만인의
희망이며 즐거움이다. ○

12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학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년 주일학교

요한 1서 4장 7절

1월 주일학교 연습찬송

장년 주일학교

65장 존음을 아껴쓰라

유년 주일학교

101장 나더러 세상 빛 되라

1월 주일학교 성구암송

야고보반

니파이삼서 18장 20절

요한반 혹은 기초 교리반

히브리서 12장 9절



청소년 편

심술난 싼타 크로스

돈루 데위트

● 파울 싘토스는 몸을 웅크리고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성탄절을 제일 훌륭하게 보내는 방법이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나를 싘타 할아버지라고 생각 할까?” 구루마를 끌다니 창피도 했지만 짐도 무지하게 무겁게 생각되었다. 물결치는 인도의 사람을 피해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빠져나가려니 고통이었다. 발에는 어름이 걸렸다. “하하 성탄절이라. 즐거운 성탄절.” 이런 광경을 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진 그는 걸음을 재촉하였다.

파울 싘토스는 안토니오 싘토스의 다섯 아들 중 막내였다. 안토니오 싘토스씨는 큰 도시의 번두리 지역에서 상당히 큰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었고 또한 그 지역 유지로 통하였다. 아버지가 늘 자랑하시는 넉넉한 생활이나 친절하신 어머니가 갖고 계신 구세대의 솜씨도 파울에게는 흥미가 없었다.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반 친구만 보시면 화를 내시는 분이였다. 하필 성탄절 전야에 동무들 하고 놀 계획이었는데 좋은 일을 하라고 이런 걸 말기시다니! 꾸중이 대단하였다. 한 귀로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송가가 들렸다.

“싘토스는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못하게 되서 참안됐다.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좀 전해 주어야겠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구 달렸다. 찬 바람은 가슴을 에이는 것 같았고 기침도 나왔다. 길바닥을 세게 걸어갔다. 점점 어둡고 호젓해 졌다. 목적지인 저분한 장소에 이르자 아쉬움은 더해만 갔다. 그러나 파울은 나쁜 소년이 아니었다. “엄마와 나를 대신해서 이걸 좀 전해주어야 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쫓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아주 불쌍한 가족이지. 아버지되는 사람

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병이 나 허약하고 가진 거라고는 없다시피 하지. 행복이란 것이 무엇 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어린 아이가 들이나 있지.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갖다 주어라. 절대로 누 구네 집에서 왔다는 것은 말하지 마라. 주기도 자랑 하지 않는게 제일 좋은 일이지.”

“행복이라니 무슨 행복?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데?” 파울은 생각에 빠졌다. 목적지에 닿았다. 너무도 적고 낡은 것에 놀랐다. 구루마를 문 쪽에 끌어 대면서 따뜻하고 큰 자기 집과 비교해 보고는 몸을 움 추렸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 왔다.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 없어” 파울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문을 녹크 했다. 노래가 멈추고 안에서 사람이 잠 간 움직이는 것 같더니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부 인은 나 보다 크지도 않았으며 내 몸집의 반도 안되 게 수척하였다. 남루한 옷 차림의 앙상한 몸은 특히 시선을 끌었다. “어떻게 오셨는지?”

파울은 숨을 한 번 몰아쉬 뒤 “아주머니의 기쁜 성탄절을 원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놀란 부인은 한 편으로 물러섰다. 파울은 선물 꾸러 미 몇개를 들고 들어가 아무 것도 깔지 않은 마루 바 닥에 놓았다.

선물을 두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세 아 이가 문을 잠시 열어두어 열어 붙었다 풀린 것 같은 동작으로 꾸러미를 향해 달려들었다. 제일 작은 제 집 아이가 한 꾸러미를, 오빠쯤 되는 아이가 다른 꾸 러미를 뜯었다.

“엄마, 먹을 거야.” “엄마, 엄마 나는 예쁜 옷이 네, 엄마에게는 오빠구요. 신타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초라한 방에 풍성하게 감도는 분위기를 감당치 못

하여 눈물을 흘리는 불쌍한 어머니는 파울의 뒤에 대 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에 대한 답이었어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실 거 예요.”

“엄마 이리 와 보세요.”

그녀는 문을 닫았다.

집안의 여러 사람은 안토니오의 아들 파울 신타스 가 밝은 표정으로 빈 손수레를 끌고 기쁘다 구주 오 셨네 만 백성 맞으라를 부르며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



관리 감독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지혜의 말씀

존 에이치. 반덴버그

● 미국 서부에 위치한 그랜드 캐논을 본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계곡의 웅대함에 경외심을 갖게 마련이다. 폭이 4 내지 18마일에 이르며 깊이가 지면으로부터 따져 약 1마일도 넘는다. 이를 바라보고 있으려면 무슨 위대한 힘이나 아니면 큰 충격으로 지면에 저렇게 큰 골짜기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골짜기가 이제는 이 계곡 바닥을 가로 지르는 리본과 같이 보이는 코로라도 강이 부단히 깎아 내린 결과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위법행위— 이미 세워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적은 행동이 인생에 있어서 비극의 대로를 만들어 놓는 수가 많다.

백 삼십 육년 전에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인도하여 훌륭한 성품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계시가 주어졌다. 이 계시는 “지혜의 말씀으로……성도 혹은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칙으로 주는 것이니라. 보라,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일에 모의를 꾀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

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 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고 있다. (교성 89 : 1, 3—4)

주님께서는 담배, 강한 음료, 자극성있는 음료의 사용을 경고하셨다. 지혜의 말씀은 “가장 악한 자의 능력”에라도 알맞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나 술이 해로울게 무엇이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알콜, 암, ... 상병으로 생명을 버려야만 했던 경우나 주님의 말씀에 서역하는데서 오는 영적인 타락을 수없이 보아온 우리는 너무도 명백하게 알고 있다.

교회의 젊은이를 놓고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영적인 건강인 것이다. 지혜의 말씀은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발전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이 개성을 구축하는 바탕이 된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는 참으로 심각하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분위기를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다.

“건강을 잃으면 큰 것을 잃은 것이고 품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는 그것이 큰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영의 구축에 시작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거나 또는 교회 내의 젊은 여성은 “말일에 모의를 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에 빠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이들 악한 세력은 젊은 여러분에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커피나 홍차쯤 마셔도 해될 것이 없다고 믿게 한다. 게다가 수억 달러를 들여 이 악한 계획을 널리 선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다. 논쟁, 이유나 슬로건을 제시하여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 3 : 16—17)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의 성전을 못쓰게 만들기 위하여 내세우는 나쁜 세력을 경고하셨던 것이다. 지혜의 말씀은 교회의 젊은이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이다. ○



신뢰와 순종

우리는 거의 칠년이 지난 어느 오월의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 우리의 딸 아기를 축복했던 일을 늘 생각합니다. 아기 아빠는 자랑스럽게 아기의 삼촌과 앞으로 나가 감독님 가까이로 가서 의식에 참여했고 권위와 권능으로 아기에게 이름을 주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직 젊은 군인인 아기 아빠는 주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신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선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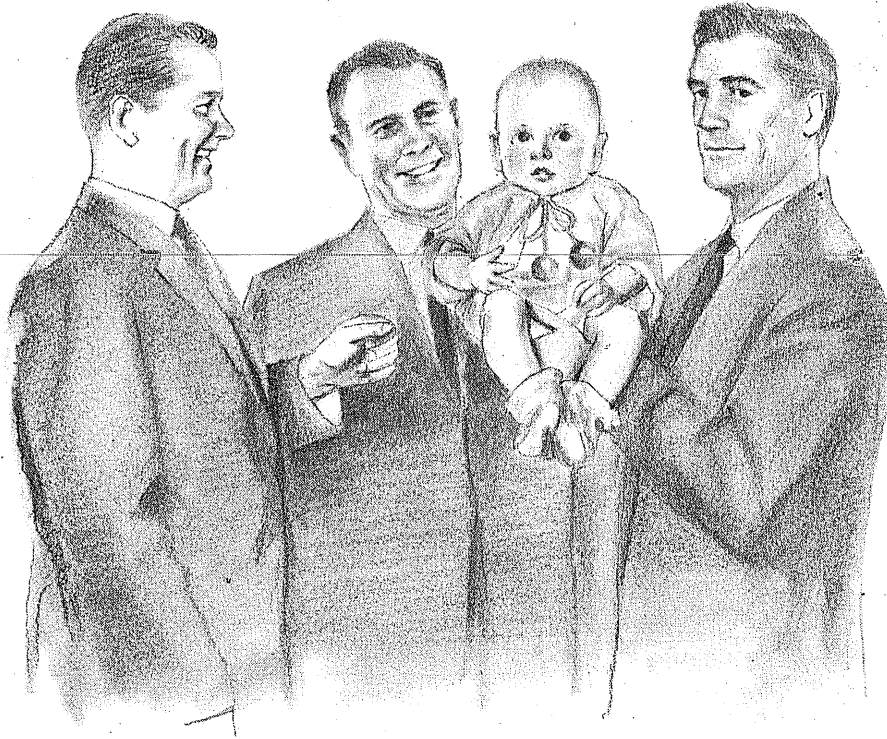
“.....부모가 택하여 내게 주는 이름은 멜리사 매드슨이라. 나는 너의 아빠로 내게 허가된 특권을 존중하며 너를 축복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끝냈을 때 어린 부부의 간절한 소망은 그 딸 아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봉되는 일이었습니다.

리차드 에치. 매드슨, 도라리 디. 매드슨

● 우리 부부가 멜리사의 부모로서 그에게 순종의 법을 가르쳐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간구한 모든 축복을 실제로 받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우리 개개인의 순종과 사명으로 정리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멜리사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뢰, 존경, 순종, 정직 등등의 어휘를 새롭게 마음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섯 살이 된 아이의 눈과 귀는 예민하게 과연 부모가 귀한 것을 귀하게 간직하는가를 점검했습니다.

멜리사는 놀다가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응급 치료를 받으러 갔던 밤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형외과 의사에게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바로 멜리사는 수술대로 옮겨 졌고 의사와 간호원과 들것과 기타 병원 시설물이 눈에 들어오자 그 낯선 풍경에 무서워 했습니다. 손톱이 아빠의 살갓을 파고 들만큼 아빠를 움켜 잡고 엄마의 위안이 어린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눈물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한 치도 움직이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엇갈린 상황에서 그가 배운 부모에 신뢰로 그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멜리사—일을 해 낼 수 있는 능력

상대적으로, 우리도 멜리사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그를 신뢰하는 도가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아빠를 직장으로 태워드리고 와사치 볼바드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던 중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백여명이 나 되는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고 범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불이 났을 때에서 난 것을 알았습니다. 불 자동차가 온 동리를 배우고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급히 차를 세운 엄마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태를 관찰한 다음 네 아이를 불필요한 위험에서 멀리 떼어 놓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빨리 엄마는 갓난이를 여섯 살 먹은 애의 팔에 안기고 다른 아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게 한 다음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여섯 살짜리 멜리사에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으라고 일했습니다. 여섯 살짜리는 얼른 분부대로 갓난이를 안고, 두 동생을 인도하여 이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가시고 불자동차의 경적이 멎고 엄마가 안전하게 돌아 올 때까지 밤이 늦었는데도 멜리사는 아이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공포에 싸인 채 엄마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멜리사는 제게 맡겨진 책임을 순종으로 해냈습니다. 그는 엄마의 지시대로 밤이 늦도록 기다리면서 스스로의 의혹과 공포를 달랬던 것입니

다. 엄마는 제이의 본능 같은 것으로 여섯 살 먹은 어린 딸에게 이 큰 책임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엄마는 멜리사가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을 만하다고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가 순종할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기회는 한번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할 때 특별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의 질서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여섯 살이나 일곱 살이 된 아이는 다른 가족과 식사 시간을 지킵니다. 또한 이런 연령의 아이들은 취침 시간도 지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새로운 장난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갖고 놀던 것을 제 자리에 갖다 둔다는 사실도 알고 이런 것을 통하여 가정에 대한 존경과 친구를 맞을 때는 조용히 해야한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물론, 친구의 집에 초대되면 가기 전에 엄마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과 친구의 집에 가면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어 거처를 알려야 한다는 것 등은 상식으로 알게 해 줍니다.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건강의 법은 필수 조건이 됩니다. 훌륭한 건강의 법을 습관적으로 지키게 하는 쉽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던가 먹고 난 다음에는 이를 닦는다던가 목욕을 자주하여 몸을 깨끗이 한다던가 밖에 나가 힘차게 뛰어 논다던가 밤

멜리사에게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일 것임을 알았다. 그가 가정에서 모두를 배울 것임으로……

에는 합당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습관을 익히도록 합니다.

경찰이나 주일학교 교사, 동생이나 형, 이웃 사람들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모범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존경을 배웁니다. 대개 부모는 자녀가 가족 기도를 드릴 때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멜리사와 같은 연배의 디모테라는 아이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이들 둘이 신경 안정제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테는 자기는 먹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셋을 모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위에 든 것을 모두 토해내게 했습니다. 디모테는 그래도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디모테만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아이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동생 둘은 무사했습니다만 디모테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순종의 법을 배우지 않음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에 가슴 아픔을 남겨 준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거짓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기회란 두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장

베냐민 왕이 죽기 얼마 전에 부모와 자식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험뵈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
(모사이야 4 : 14 : 15)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훈계라면 마땅히 자식들 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 훈계의 말씀에 따를 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가르침, 성신의 은사의 도움으로 자식들이 성장하여 바른 성인이 될 때 부모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하고 여섯, 일곱살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게 되면, 가정의 법을 지키면,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면 크게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에게 어린 아이로의 축복을 일깨워 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 바른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는 부모를 축복하십니다. 자녀로 해서 부모가 축복을 받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함이라. (아가 8:6)

사랑의 힘

린시 알. 키티스



● 밤은 춥고 냉랭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답했다. 의사가 방문 환자나 왕진을 거절하기에 알맞을, 그러나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밤인 것이다.

3개월 전에 아버지는 반신 불수에 걸리셨고 이로 인하여 한 쪽 다리를 못쓰시게 되어 한동안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처음에는 한 쪽 다리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하신 것처럼 보였으나 차차로 힘을 회복하시어 어느 정도까지는 진전이 있었고 혀는 풀리어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연세는 94세로 어렸을 적 소꿉 친구였던 어머니의 성실한 남편으로, 열 자녀의 따뜻한 아버지로 복된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러나 노령이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전의 건강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려는 온갖 방법을 시도하셨다.

가족 중 단 하나의 의사였던 나는 아버지 맥으로부터 40 마일이나 떨어진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셔왔다.

그렇게 하므로써 나는 가까이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고 간호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차 지나면서 나는 아버지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성 어린 간호를 석달이나 계속했지만 회복은 불가능하였고 마침내 아버지의 육신은 안식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황량한 밤, 아버지의 맥박은 느끼지도 못할만큼 약했고 체온은 정상 이하로 내려가 있었다. 혈압도 차차로 떨어져서 정지되어 가고 있었다. 호흡 하나 하나가 그의 삶을 침식하면서 다시는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육신의 거부를 지키고 있었고 3개월 여의 투병은 끝장을 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다.

순간 나는 건강이 최상으로 좋을 때에도 불안정한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기왕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할 바에야 어머니를 추운 밤중에 불러 40여 마일의 여행을 강행하시도록 한다면 어머니의 휴식을 방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임종

을 보게 된다 하여도 이미 의식 불명이 된 아버지가 깨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66년간의 결혼이 이미 서로의 최후를 함께 할 권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죽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지상의 거룩한 특권이요 세상적인 여하한 이유라라도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권리를 내가 부인할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집에서 병원까지 오시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큰 일이었다. 어머니는 급히 죽음으로 가고있는 동반자 곁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언젠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는 일어 서시는 습관이 있었다. 어머니는 휠 체어를 밀어놓고 서셨다. 조금은 불안한 걸음으로 닷아간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에 뺨을 대고 이마에 흘어진 회색 머리칼을 위로 걸어 올려 주셨다. 수천번은 그러셨지! 어머니는 다시 몸을 굽혀 아버지 이마에 키스를 하신 다음 아버지의 귀에 입을 대고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말년에 점차로 청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늘 들으셨다. 그리고 그때 죽음으로 치달던 아버지 주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러나 서서히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피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고여 뺨으로 구르듯, 그렇게 천천히 아버지의 신경이 되살아온 것이다. 혈압도 정상으로 오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살아 왔으며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버지는 깨어나셨다.

우리는 어머니만 남겨 둔채 방을 떠났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참으로 중대한 일을 우리는 함께 정리하였다”고 하셨다.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유일의 다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의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사명

● 이번 성탄절기에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여러분의 교회는 그의 의를 받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날에도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온 인류의 메시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인간사이를 중개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 : 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성탄절기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명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과 도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각자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이며 그와 관련된 사명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세워 놓으신 이 위대한 조직을 채우기 위하여 맡은 일 혹은 직분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우리들이 할 일은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 있습니다.

“내게도 할 일이야 있겠지만, 나는 적당하지 않아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지부장이나 서기나 교사가 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주님은 인간성을 그의 직분에 따라 헤아리시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거룩하게 임명된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임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앞 날의 보상은 여러분에게 정해진 직분과 과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이행 능력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대성은 여러분이 맡은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참으로 가름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뒤로 물러나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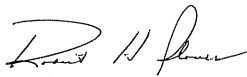
리스도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행여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이 성탄절기가 그의 부름받은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그리스도께 다시 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성탄절이란 무엇인가고 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자가 그에 답하기를 “성탄절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일하고, 선물을 주며, 임의로 경배를 드리며 생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서로 생각해 주며, 사랑이 넘치고 지극히 평안한 가정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이며 또한 우리들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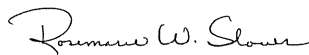
선교부장단에 있는 저희들은 한국땅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과 부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성탄절 인사를 드리며 더불어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봉사하는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의 사랑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약 이천년 전에 아기 예수는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탄생 하셨습니다.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 일은 계속 전달 되어 왔으며 온 인류가 경하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의 진실성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오늘날에도 살아 계심을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

이 간증과 더불어 여러분이 모두 즐겁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이 날에 그리고 언제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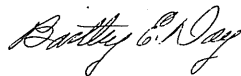
로버트 에이취. 슬로버
선교부장



로즈마리 더불유. 슬로버
선교부장 부인



이 · 호 · 남
제일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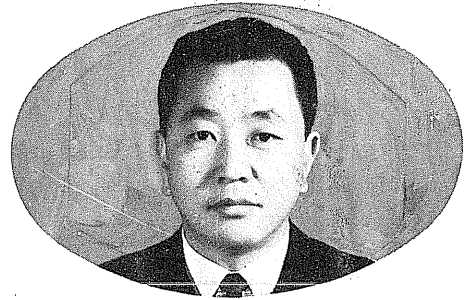


버틀리 이. 데이
제이보좌

한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일동

응답되는 기도

남부지방부장 배 영 천



● 우리들은 기도에 관하여 명백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의로운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기도는 필연코 응답될 것입니다. 약 일세기 반쯤이나 전의 일입니다. 교육도 잘 받지 못한 한 소년이 서부 “뉴욕”의 깊은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 현재의 신권시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소년은 물론경을 발견하였고, 인간에게 성스러운 신권을 부여하였고, 교회를 조직하였고, 모든 열쇠와 힘과 권능을 가진 주님의 복음을 회복함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빛과 계시와 권능들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신권의 시대에서도 이 위대한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 처럼 의의가 있고 또한 응답을 받기 힘이 드는 응답을 받은 이는 따로 없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서 오늘까지 입에서 흘러나온 모든 기도 가운데서 구세주께서 드리신 마지막의 기도처럼 지극히 신성하며 겸손하신 기도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다음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1.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성경구절은?
2. 어떠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구절은?
3. 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그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과 위의 세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 가. 응답되지 않는 첫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고하여 봅시다.
 - ㄱ.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기도한다.
 - ㄴ. 만약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여도 이 응답이 사람을 낙담시킨다.
 - ㄷ. 너희들은 무엇을 구할지 모르노라.....
 - ㄹ. 나의 뜻대로 되지말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소서.
- 나. 제2의 이유 즉 기도를 모든 일의 대응으로 사용한다.
 - ㄱ. 사사조건이 기도에 따라 항상 성취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 ㄴ. 만약 어린 자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 ㄷ. 다윗의 기도.

- ㄹ.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
- 다. 제3의 이유 즉 노력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ㄱ. 때로는 긴 시간을 소요하여 기도를 계속한다.
 - 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것.
 - ㄷ. 응답되는 기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응답된다.
 - 가. 경우(환경)의 변화.
 - 나. 경우(환경)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부여받는 것.
 - ㄹ. 채무에서의 도피.
 - ㅁ. 예수는 갓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하사 너희를 구하실 분이랴. 스스로 겸손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원수의 권세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며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주시도록 간구하라. 수확이 풍성하도록 너희들에 있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들에 있는 가축이 번성하도록 기도하라. 뿐만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 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엘마 30 : 17-27)

어느 때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만약 인간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한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떠한 우월감을 소유할 것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세상에 주어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4.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는지 혹은 응답되었는지?
 5. 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6.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 7 : 21)
- 이 말씀은 기도를 시인하고 있는지, 혹은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지 연구하여 봅시다. ○

진리의 말씀

나의 지난 세월— 어디에 있는가

리차드 엘. 이반스

삶과 더불어 눈결에 스쳐가는 세월, 그 빠름을 생각할 때 마다 아연해 집니다. “나의 지난 세월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시인은 절규했습니다. 몇 주라야 몇 시간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의 한 일을 도리켜 보면, 잃어버린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등 낭비해 버린 시간으로 머리가 혼란해 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혹은 가치있는, 어떤 때는 가치없는 것을 듣고 보며, 전혀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을 읽기도 하고, 또 읽어야 할 것을 읽지 않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전혀 생각하거나 써 본 일이 없는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인 롱 웰로우스는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이알의 그림자냐, 시계의 초침이냐, 모래의 달음질이냐? 이런 것들은 시간의 것, 모습이려니, 시간은 영혼의 생명이어라” 시간, 인생, 소망 이것은 우리가 열망하는 것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스스로의 시간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것을 추구하고 탐구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과 밀려가는 것의 차이로 간파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늘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지저분한 것을 한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뿐 끝내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일이라던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에 염려를 더하는 일을 지양하고 과연 우리가 참되게 뉘우쳐 주어지는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전진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이 있고 이미 했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값진 삶인 작은 시간의 마디마디를 선용하여 꼭 배워야 할 바를 배우고 꼭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며 꼭 살아야 할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개하고 발전하고 엄이도령식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방법으로 화평과 바른 목표에로의 의지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여 화평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론 테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 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 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